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무웅



한해를 마감하기에 바쁜 요즘쯤 법조계로부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다른 한 가지 가슴 아픈 소식이 동시에 전해져 착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기쁜 소식이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서술 퍼렇게 시민들을 떨게 했던 '긴급조치 1호'가 36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마침내 대법원 전원회의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문인 64명은 장준하 선생이 시작한 유신헌법 개정 운동에 호응하여 개헌 청원 지지성명을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다. 그 긴박했던 날들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번의 위헌 판결이 어떤 실효를 행사하게 될지를 떠나 남다른 감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의 매듭 하나가 이렇게 풀리는 듯할 때, 이번에는 한국 사법사의 오욕이 필지 모르는 또 다른 판결 하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작년 1년여 동안 응산 철거민 찬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때문에 오랜 수배생활과 감시의 영여생활을

겪었던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와 이종희씨에게 징역 5년과 4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너무나 뜻밖이고 충격적이다.

알다시피 박래군씨와 이종희씨는 우리 사회가 알아주는 인권운동가들이다. 그들은 참사 후 1년여 동안 철거민들의 주검이

처음으로써 절반의 해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공로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박래군씨와 이종희씨에게 '5·18인권상'과 'NCC인권상', '2010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등의 상을 수여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보면 작년 응산 철거민 참사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 균열을 보여주는 아픈 표이었다. 응산참사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발화의 직접적 계기가 어디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구조의 문제이다. 전국 600여 군데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투기개발이 재개발-재건축의

때문에 종교계와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전체 시민사회가 참사의 아픔에 동참해 나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박래군·이종희 같은 인권운동가들은 자기 본래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헌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도권 법정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작년 내내 응산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모임이 계속되고 8월에는 25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의 항소심 재판부 교체라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이종연 철거민대책위원장 등 7명에게 4~5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 철거민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이 시대의 의인들은 현실의 법정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모든 사회문제에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나 당연히 날카로운 이해의 충돌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익과 손해가 갈라지는 경계선이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구가름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하고 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정부와 사법부와 언론이 공정한 중립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점이다. '친서민' '공정성' 같은 구호들의 명실(名實)이 일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문학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실(名實)의 일치를 기대하며

안치된 순천향병원 영안실과 명동성당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했고, 그러느라 소위 불법시위나 집회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응산참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 더 분명하게 말하면 시민사회의 여론에 떠밀려서 시대의 십자가를 메었던 우리 시대의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유감'과 '위로'를 전하고 서울시가 공식 조처에 나서서 꼭 1년 만에 장례식을

이름으로 거듭해서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한, 참사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뜻있는 분들의 주장대로 철거민들은 결코 무슨 '테러리스트'나 '개발이익에 눈먼 이익집단'이 아니라 20년, 30년 우리 주위에서 생애에 종사해 오던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옮겨갈 집도 비축해놓은 재산도 없었기에 결사적으로 자기들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뿐이다. 이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생존 문제가

시설

공동모금회 밍다고 불우이웃 외면해서야

지난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유출 사건 이후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 성금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16일 현재 3억199만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억9424만여 원의 61%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기탁자가 사용처를 정해 기탁하는 지정기탁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모금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는 지정기탁과 일반모금이 6대4의 비율이었지만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공동모금회의 비리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모금액의 급감도 문제지만 이웃돕기 성금이 지정기탁에 편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공동모

금회의 일반모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공동모금회가 내년에도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모두 64건, 5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성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하지만, 나쁜 짓은 모금 단체가 했는데 정작 피해는 가난한 이웃의 몫이 되는 안 된다. 공동모금회의 비리는 밍지만 때문에 온정마저 식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그만큼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층층이 많다.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사업의 실패는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온정의 불씨를 되살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 어선 갈수록 흉포화, 강력 대처하라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서 나선 우리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다가 하면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경비정관이 부상을 입는 등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사흘 전 군산시 어청도 북서쪽 72마일 해상에서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과 중국 어선과의 충돌은 당시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날 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50여 척에 대해 점검검색을 벌이던 중 중국 어선 요영호가 우리 측 3000t급 경비함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진 선원 10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8명은 우리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고 한다. 특히 이날 단속 중이던 경찰관 4명이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니 섬뜩할 따름이다.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하거나 싸늘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쌍방 처벌과 무허가 조업 및 공무 집행방해, 영해침범 조업 시 3년간 상대국 경계수역 조업 금지에 합의했지만 중국 어선들엔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근래에는 중국 어선들이 50~100척씩 집단으로 조업하면서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폭력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해경의 단속 지침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 엄히 따진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NGO 칼럼

임진희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을 거치며 임시경쟁과 사교육비, 각종 폭력의 극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변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혁신 학교는 경쟁교육에 지친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행과 비리 속에 도무지 바뀌지 않는 교육현장과 관료들, 경쟁만을 강요하는 임시체제에서 숨 쉴 틈 없이 나오는 공포를 헤쳐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에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던 형식적인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참여와 협력, 소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와 공식적인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민주적 운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 낼 때 혁신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혁신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그렇지 못했기에 더

빛고을 혁신학교 성공 기대한다

하면 우리 교육과 학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는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가 혁신학교로 모아지면서 학부모들이 그리는 모습과 요구하는 이해 또한 다양하다. 그 뜨거운 관심과 요구들을 어떻게 잘 모아 낼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혁신학교는 촛나나 비리가 없는 학교, 문턱이 낮은 학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넘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큰 틀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전인적인 인성뿐 아니라 개인적 꿈과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키워나가는 배움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학교가 특별히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혁신이다. 학교폭력, 왕따, 육식 등이 없고 건강한 문화가 살아 있는 학교도 학부모가 바라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다.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는 보다 주체적

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에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던 형식적인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참여와 협력, 소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와 공식적인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민주적 운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 낼 때 혁신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혁신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그렇지 못했기에 더

하지만 너무 조바심내지 말아야 한다. 배움의 과정에서 성취의 보람과 실패의 경험을 두루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꼭 일등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나갈 긍정적인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 학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성취욕을 불러일으킨다. 학부모들도 꼭 경쟁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지 않을까.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깃든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가 우리 지역의 모든 학교에 혁신의 뿌리를 심고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바꿀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기고

박덕양



사람이 살면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은 집으로 돌아오고, 외지로 출장 나갔던 직장인은 회사로 돌아가며, 임기를 다 끝마친 정치인은 본연의 직업이나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유가 뭐가 됐든 외국으로 이민 가 살다 다시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와 살고자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민 갔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사는 재외동포를 두고 '역 이민자'라고도 한다. 이들은 힘든 이민생활에 지쳐서, 또는 이민

본으로는 인터넷접속 금융거래 등 현실상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생각해보면 율화가 치밀기도 한다. 이민생활중에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조국통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들이다. IMF당시 금모으기는 물론이고 한해, 수해 등 작고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 인회 등 조직이 모두 나서서 달려들며 아 송금했다. 지금처럼 해외정보가 충분치 못할 때인 80~90년대에는 공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사회단체에서 해외출장이라도 나오면 이민자

역이민 재외동포들에게 사랑을

생활에 성공한 경우라도 만년의 고향에서 보내야 하는 수구초심 때문에 귀국을 꿈꾼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씩 조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눈치보며 살다 나이가 더 들기 전 고향의 흙내음이라도 실컷 맡으며 살아야 하는 굳은 각오로 그동안 쌓아온 제2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조국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그동안 변해버린 한국사회가 주는 또 다른 문화적 혼란이다. 보릿고개의 기억, 모두가 근검절약하던 시기에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화려하고 빠르고 물질과 학벌이 주다. 당연히 그들은 현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내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조차도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생김새와 언어는 분명 한국사람인데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증 대신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가지고 있어 그 신

들은 무료 가이드를 자처하고 통역, 교통편의 제공, 현지 섭외 등 모든 일을 거들었다. 그런 그들이기에 돌아온 조국의 무관심은 너무도 서늘한 것이다.

다행히 2012년부터는 해외 750만 동포에게도 참정권의 일부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해외동포도 우리 국민이며 그만큼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기 자기들이 살았던 국가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장점과 노하우들을 조국고향에 돌아와 재조합으로써 결국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방인으로 보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 시즌이다. 'happy holiday seasons'라고 하여 가족들과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한다. 주변에 역이민으로 다시 돌아온 재외동포들이 있다면 성탄절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건 어떨까. <전 남가주(LA)호남향우회 사무총장>

공공주차장 업소들 사유물 전락 안되게 철저 관리를

전용 주차공간이 없는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한적한 길이나 공공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주차장이 사실상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주차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공주차장은 분명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식당이나 슈퍼 등 인근 상점들이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우리 차가 들어와야 한다", "손님 차를 주차해야 하니 차를 빼라"

등 인근 상인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사례도 더러 발생했다.

일부 상점들은 아예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의 주차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

해가 갈수록 차량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 반면에 주차장은 한정돼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주차장이 업소들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신영희·광주시 북구 대충동

無等鼓

연말, 사회 각계의 기부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기부왕' 소리를 듣는 가수 김장훈은 연말 불우이웃을 위해 10억원의 쾌척하기로 했다고 소속사가 밝혔다.

또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패션 디자이너 안드레기의 유족은 서울대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지애(22·미래에셋), 김인경(22), 박희영(23·이상 하나금융)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퍼들이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재단에 1억 3400여만원을 보냈다.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인 '달인'의 김병만은 캐럴 음반의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

이웃돕기는 연말 연시에 집중되고 스타들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기부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릴레이 선행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학설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영국 레스터대 연구팀은 번갈아 가며 서로 돕는 행동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는(tit-for-tat) 본능이 연쇄 선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서로 권의를 싸우는 행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남극의 펭귄은 부부간 역할을 분담한다. 한 마리가 새끼를 돌보면, 다른 한 마리는 새끼의 먹이감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이다.

펭귄 부부는 두 역할을 번갈아 맡기도 한다. 인간이나 동물에는 일부가 우연히 선의를 보이면 다른 개체들이 따라하는 '전파구조'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같은 특성 때문에 우려할 일도 있다고 지적한다. 전파구조는 선한 행동은 물론이지만, 악한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 주변에서 일탈행위를 할 경우 호기심이 발동해 따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연말연시에는 사람들의 착한 행동만 이어졌으면 한다. 마치 '기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